

# 세계의 결핵

글 안동일(세계보건기구 아시아 결핵프로그램 책임자)

## 결핵, 왜 다시 악화되었나?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결핵은 점차 감소되어왔고 21세기에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결핵 전문가들은 예상해 왔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결핵환자<sup>1)</sup>가 남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핵환자의 10~20% 가량이, 심한 경우는 50% 가량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에이즈에 의한 결핵의 악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에이즈 환자의 3분의 1 가량이 결핵으로 사망할 정도로 에이즈와 결핵은 역학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불규칙적으로 하면 체내의 결핵균이 결핵약에 잘 듣지 않는 소위 내성균으로 변화하게 된다. 내성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2차 항결핵약을 써야 되는데 치료효과가 일반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또한 가격이 1차 항결핵약에 비해 약 1백 배 가량이나 비싸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약제 내성환자는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상당수가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항결핵연맹(IUATLD)의 지원 하에 1994년부터 1999년까지 72국가에서 약제 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여러 항결핵약제에 동시에 내성을 갖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약제 다제 내성환자가 72개 국가 중 63개 국가에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페루, 중국 등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결핵의 발병과

1) 일반인의 경우 체내의 면역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약 5~10% 정도만이 발병을 하고 대부분은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의 면역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의 30~40% 정도가 결핵이 발병하게 된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50~60%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나라에 에이즈가 퍼지면 결핵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약제 내성 결핵의 등장이 세계의 결핵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결핵전문가들은 세계의 결핵문제를 악화시킨 더 중요한 요인으로 결핵문제에 대한 정부 및 일반인의 무관심과 국가결핵관리 예산의 부족 및 감소를 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결핵이 심각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6개월 치료에 불과 미화 20~30불밖에 안 하는 결핵약을 자국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불확실한 외국의 원조나 차관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결핵약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용이하지 않아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 가더라도 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치료실패나 약제 내성을 초래하곤 하였다.

구미 선진국도 결핵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고 오만하고 자만한 결과 국가 및 시의 결핵관리 예산과 활동을 줄이고 방치하였는데 도시 빈민층을 중심으로 결핵환자가 증가하거나 약제 내성환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8백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하루에 8천 명, 매 1분에 5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98%의 결핵환자가 개발도상국에

---

한데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8백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하루에 8천 명, 매 1분에 5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98%의 결핵환자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데 아시아가 전세계 결핵의 약 60% 가량을, 아프리카가 약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서 발생하는데 아시아가 전세계 결핵의 약 60% 가량을, 아프리카가 약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순으로 환자가 많다.

한국은 6.25등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워낙 열악한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결핵이 매우 심각하였으며, 그후 성공적인 국가결핵사업의 결과 지난 20~30년간 해마다 약 6~7%씩 결핵환자가 줄어들어 왔다. 하지만 결핵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여 인구당 환자수는 중국, 라오스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보다도 높은 편이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히 에이즈와 연관된 결핵은 많지 않지만 약제 내성환자가



한 환자가 우즈베크의 사마칸드에 있는 폐결핵 병원에서 약을 타가고 있다 <사진 [www.who.int/gtb/](http://www.who.int/gtb/) 발췌>

많아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 결핵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

결핵은 1940년대 이후 결핵약이 계속 개발되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약만 제대로 투약하면 6개월 이내에 95% 이상의 환자가 완치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리팜피신이란 강력한 결핵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결핵치료에는 일년 반 내지 이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오랜 투약에 지쳐 환자들이 투약을 중단하는 것이 치료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결핵 치료는 약값도 비교적 저렴하여 구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별 부담

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결핵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이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결핵약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세계은행 등에서 차관을 얻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인류가 세계화란 기치아래 21세기를 맞이하였지만 전세계 인구 중 3억 명이 하루 1불 이하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인구 전체의 약 65%가 하루 수입 1불 미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과(G8) 유엔은 세계화로 인해 자칫 악화될지도 모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총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퇴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 초에 제안하여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를 위한 국제기금'이 급년 초 탄생하였는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G8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보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화 8억불(약 1조원)이 2002년 한해의 활동을 위해 모금되었으며, 해마다 증액하여 연간 약 20조 원 가량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아프리카는 물론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수많은 결핵환자의 죽음을 예방하고 결핵을 퇴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결핵 퇴치를 위한 한국의 역할

1960년대 초 국가 결핵사업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이후 정부의 우수한 결핵 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 결핵협회 및 결핵 연구원의 홍보활동 및 기술지원, 그리고 보건소와 민간병원에서 결핵을 위해 종사해온 보건요원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결핵관리 국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결핵협회 및 결핵 연구원은 역학 및 결핵관리의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NGO로 발돋움해왔고, 최근 십수년간 세계보건기구의 결핵관리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 및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

결핵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이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결핵약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세계은행 등에서 차관을 얻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IMF의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전세계 결핵퇴치를 위해 민간 및 NGO 차원에서의 기술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도 함으로써 결핵을 통한 보건분야에서의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sup>한</sup>



안동일님은 결핵전문의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 소재)에서 아시아 결핵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메일 ahnd@wpro.who.int